

## 제 19 회 국가 형제회 모임 - 우리의 영혼 되살리기

케이트 클라이너트, OFS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생기돋게 하는 데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가 고유하며 독자적이기 때문에 저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축복을 받는다” 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의 우리는 나이가 들고 우리의 성소가 더 성숙해지면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형제회 총회나 형제적 사목적 방문을 위해 형제회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버려진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운전을 하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빨강 신호등에 멈추어 섰을 때, 도움을 청하는 노숙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이 기회를 위해 과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찾아 뒤적거리는데, 신호등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뒷차는 조급하게 경적을 울리고, 결국 저는 그 노숙자 주님 (homeless Christ)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저의 영혼이 좀 더 크고 성숙해지도록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은총을 위해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조차도 못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여러 번의 비참한 마음을 경험하고서야 다음 기회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차 안의 컵을 놓는 곳에 미리 현금을 준비하고 다니다가 신속히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빈다는 말도 건넵니다. 그 때마다 저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 저를 바라보시며, 제 노력에 대해 축복해 주십니다. 단지 이 작은 사건만으로도 한 동안 제 영혼은 되살아나고 생기가 돋습니다

이번 국가 형제회 모임 “우리의 영혼 되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는 축복의 봉투 (Blessing Bag) 라는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1 갤론 크기의 비닐봉투에 여행용 세면도구, 간식, 양말 등을 채우는 일입니다. 좀 더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쓴 카드에 당신의 이름을 써서 그 봉투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국가 형제회 모임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도울 수 있는 이 축복의 봉투(Blessing Bag)를 준비하는 모임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각 형제회나 지구 형제회에서 지금부터 다음 몇 달 동안 이런 종류의 물품을 수집한다면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내년 6 월에 이 수집한 모든 물품을 국가 형제회 모임이 개최되는 샌 루이스에 있는 위치한 Renaissance Hotel 로 보내시면, 국가 형제회 모임이 끝날 때 쯤, 샌 루이스에 있는 St. Anthony's Food Pantry 란 무숙자를 위한 봉사 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는 도착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샌 루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 되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6 월 30 일부터 7 월 4 일까지 있을 국가 형제회 모임에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